

# 與 “더는 못미뤄” 野 “역사 쿠데타”... 고성·막말 아수라장

## 국감 마지막 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충돌 파행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11개 상임위에서 열렸지만 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등 막판까지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을 시작하면서 민생 국감, 정책 국감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알맹이 없는 빈 손 국감, 정쟁과 고성으로 오가는 구태 국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예상대로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여야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반말까지 난무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됐다.

세정지민주연합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를 듣기도 전에 의사진행방안을 통해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사실 여부를 밝히려며 몰아세웠다. 이에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반발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으며 황 부총리는 여야의 공방을 1시간 30분 넘게 들은 뒤에야 형식적인 답변이나마 내놓을 수 있었다.

세정지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부실한 자료요청을 문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 고삐를 쥐었다.

세정지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히틀러의 나치가, 일본 제국주의가, 북한이, 유신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고 민주화가 되면서 검인정 체제로 바꿨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를

## 황부총리 “행정절차 대로” 교수

## 정회·속개 반복 본질의 못해

별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쿠데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반말과 고성으로 난무했다.

국감장이 결국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교문위 국감은 본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2시간 만에 정회됐다.

황 부총리는 야당 위원들의 중·고교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밝히려는 공세에 “행정절차에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진실과 독재 미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황 부총리는 “교육부가 진실과 독재를 미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나”고 일축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교문위원은 국감장 밖에서 각각 회의를 열고 공방전을 지속했다. 새누리당 교문위원이 중심이 된 역사특위는 “야당이 통합교과서에 ‘국정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정치공세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정지민주연합 교문위원들은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는 친일독재 역사교과



세정지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를 보여주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국정화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4시와 6시 파행과 속개를 거듭했지만 교육부의 자료 제출

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밥쌀용 쌀 수입 재고·쌀 격리 확대 촉구

## 국회 농축산해수위 진통끝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8일 진통 끝에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쌀 격리 확대 촉구 ▲무역이득공유제 조속한 도입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우리 농축수산물 제외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3개의 결의안 채택까지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개의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한참 넘겨서 회의가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남북관계 개선과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과, 외국산 쌀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일부 촉구 결의안의 채택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쌀 대북지원 촉구결의안’은 ‘쌀 격리확대 촉구결의안’,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촉구 결의안’은 ‘밥쌀용 쌀 수입 재고 촉구 결의안’으로 명칭이 수정됐다.

수입 재고 결의안은 정부가 계속 밥쌀용 쌀 수입을 추진할 경우 쌀값 하락과 정책 불신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쌀 수입 방침 재고와 함께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고 즉각 수급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격리 확대 결의안은 연속된 풍작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 140만t에 달하는 쌀이 재고로 남아있으며 정부가 추가적인 쌀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는 한편 40만t의 쌀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토록 하는 쌀 격리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 외에도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한 후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11월초 확정·고시...2017학년도부터 적용

### ‘국정화’ 향후 일정과 절차

### 황부총리가 직접 발표할 듯

정부가 민간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발표 절차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국정화 전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12일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발표한 뒤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에 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사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등학교 교과서

의 발행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행정절차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에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대로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면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수정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지난달 23일 고시된 총론에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게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가 2018년 3월1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런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본격적으로 국정교과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편 내주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누가 발표할지도 관심거리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누가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결정을 발표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확대된 한국사 교과서 문제의 비중을 감안할 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공식적인 결정은 교육부 수장인 황 부총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최근 굵직하고 민감한 교육 정책을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잇따라 발표했던 점을 들어 다른 고위간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향후 예상 절차**

- 2015년 10월8일 교육부 및 소관기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
- 12일 한국사 국정화 전환 여부 발표(계획)
- 10월 중 (발표 후 20일 이상)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 내용: 한국사 교과(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의 교과서 발행방식 등 포함
- 11월 초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 확정·고시
- 별도의 절차 ‘2015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수정 절차 필요
- 절차 완료시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 국정 교과서 개발 진행
- 국정교과서 2017학년도부터 적용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교정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의뢰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